

여수 예술마루 올해 공연·전시 '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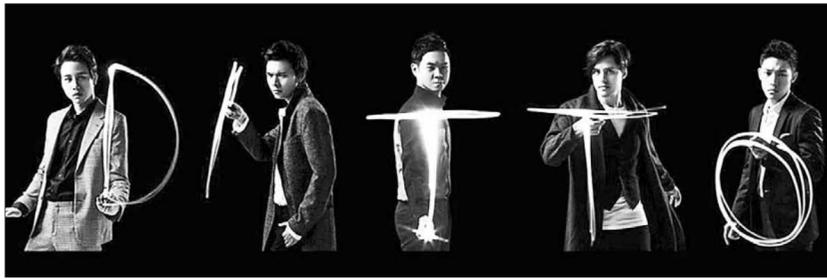
여수출신 피아니스트 문지영 독주회
클래식계의 아이돌 '디토' 공연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응녀' 눈길
조각페스티벌 'I am your Energy'도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응녀'



문지영



디토

(예술마루 제공)

지난 2012년 문을 연 여수문화예술공원 GS칼텍스 예술마루(이하 예술마루)는 다양한 공연·전시 선보이며 지역 문화예술의 보고로 자리잡았다. 5년간 1349회에 달하는 다양한 전시, 아카데미 프로그램 등을 기획했고 모두 54만명이 예술마루를 찾았다.

특히 수준높은 프로그램과 함께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를 설계한 프랑스의 건축가 도미니크가 설계한 건물은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며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한다.

예술마루가 올해 풍성한 기획 공연과 전시회를 마련했다. 지역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클래식 공연 유자로, 클래식 애호가들의 갈증을 해소해주었던 예술마루는 올해 클래식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했다.

■공연
지난 12일 '임청정교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신년음악회'로 올해 첫 공연을 시작한 예술마루는 5월 피아니스트 문지영의 독주회를 진행한다. 여수 출신으로 세계적 명성의 부조니 콩쿠르에

가족 뮤지컬 '정글북'·뮤지컬 '광화문 연가' 공연
가족 테마 '안녕, 울 집'·어린이 미술 '움직이는 미술' 전시

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며 이름을 떨친 문지영의 앨범 발매 기념 첫번째 독주회다.

팬들을 몰고 다니는 '클래식계의 아이돌' 앙상블 디토의 10주년 기념 공연 '디베르티멘토'(6월23일)도 관객들이 기다리는 연주다.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해스테인 피 케키브(바이올린) 등으로 구성된 디토 앙상블은 이번 공연에서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그밖에 한국을 대표하는 실내악 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 연주회'(9월 15일)와 첼리스트 앙성원을 주축으로 한 '예술마루 실내악 페스티벌'(10월27~29일)은 가을 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음악회다.

여기에 다양한 예술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확장된 레퍼토리를 선보일 브런치 음악회가 연 10회로 늘어나면서 내실을 더했다.

뮤지컬 분야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일대

기를 그린 '영웅'(5월 26~28일)이 대거중이다. 2009년 초연 후 많은 사랑을 받아온 '영웅'은 어지러운 현 시국, 진정한 영웅의 존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드는 작품이다. 2017년 버전엔 초연부터 공연했던 정성화를 비롯해 안재욱, 이지훈 등이 타이틀롤을 맡는다.

그밖에 가족 뮤지컬 '정글북'(9월22~23일), 뮤지컬 '광화문 연가'(12월), 한국 대표 단편 소설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동백꽃', '운수 좋은 날'을 소재로 한 명작단편소설뮤지컬 '콩팥'(12월 22~24일) 등을 만날 수 있다.

지난해 파리 공연에서 화제를 모은 국립창극단의 '변강쇠 점 찍고 응녀'(6월 15~16일)도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로 활동을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고선웅이 연출을 맡은 '변강쇠 점 찍고 응녀'는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불리지 않는 '변강쇠 타

령'을 재해석했다. 그밖에 '유도소년'(10월 20~21일)은 대중성과 작품성을 고루 갖춘 연극으로 호평 받았던 작품이다.

■전시
올해 가장 주목할 프로그램은 개관 5주년 기념전으로 준비한 조각페스티벌 'I am your Energy'(5월12일~7월2일)이다.

김원웅 등 50여명의 조각가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2012년도부터 개관 3주년 까지 진행됐던 야외 조각전의 확장 버전으로 타인에게 예술작품을 통해 힘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대중에게 즐거움 선사하는 기획이다.

또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가족 테마의 전시 '안녕, 울 집'(7월14일~9월3일), 어린이 미술전 '움직이는 미술'(10월 13일~12월3일)도 관람객을 찾아가겠다.

개관전으로는 지역 중견 작가 초대전인 강종래 작가 고회기념전(3월3~3월26), 전남대 김대길 교수 조각 전시(4월14~5월7일)가 대거중이다. 문의 061-808-700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팔순 할머니의 '갯벌에 쓴 시' 김옥례 시집 '나의 바다' 출간



"공부 못해서 서툰데 한을 이제야 풀었다. 팔십 넘어서 시가 나오다니... 시 못 써서 한이 맺힌 나는 한풀이 못하고 떠날 줄 알았더니, 어쩌다 목포 공공도서관을 접하게 되어서 운 좋게 이대훈 전사 교수님을 만난 인연으로 이렇게 내 소원을 풀게 될 줄이야. 신인들 알았으라."

지난해 '팔순 할머니의 '갯벌에 쓴 시'라는 사연으로 기사화 돼(광주일보 2016년 10월 20일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무안 출신 김옥례 할머니. 최근 김 할머니의 생애 첫 시집 '나의 바다'(북에디션)가 작품집으로 엮여져 나왔다.

김 할머니의 시집 출간은 지난해 장흥 출신 이대훈 시인의 크라우드펀딩 방식 모금이 계기가 됐다. 지인들에게 할머니의 사연과 시집 발간 계획을 알려 후원금을 모았고 그 결과물로 시집이 탄생하기에 이른 것이다.

할머니와 이 시인의 만남은 지난 2014년 목포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된 시창작교실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인은 수강생 중에 가장 연세가 많았지만 어느 수강생 못지않게 진지하고 재능이 있던 할머니를 눈여겨봤다.

시집에는 모두 70여 편이 작품이 수록돼 있다. '백사장', '구름', '어느 해 봄날', '황혼' 등 할머니가 평소 애용했던 시들은 4음보의 운율이 맞춰져 있어 읽는 맛을 더해준다. 또한 유년부

터 만년에 이르러는 할머니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한편의 '자서전'으로 손색이 없다.

"노란 은행잎에 입에 얼굴 그리고/ 빨간 단풍잎에 옛 추억을 적어서/ 넓다란 가랑잎 봉투 만들어서/ 고이 곱게 담아서 맑고 맑은 계곡물에 두들실 띄웠네/ 변지수도 나는 몰라/ 주수도 나는 몰라/ 남이시어 남이시어/ 오늘 밤도 달을 보며 이내 생각하겠네/ 남이시어 남이시어"

시집 앞쪽에 수록된, 수기로 쓴 '어느 늦은 가을'은 서정적이면서도 절감하다. 이 작품뿐 아니라 모든 시들은 인생 이력만큼이나 깊이와 울림이 담겨 있다. 어설플 시인들의 시보다 할머니의 시는 작품성, 서정성, 이미지 등을 고루 갖추고 있어 색다른 감동을 준다.

이대훈 시인은 해설에서 "우리 어머니들 중에는 김옥례 시인처럼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시심을 일구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것이다. 그분들이 꼭꼭한 가슴속에 쓴 시가 어디 한 두 편이라"고 언급하면서 "이후로도 그런 분들의 시가 세상에 더 나왔으면 좋겠다. 시는 어떤 형식이나 기교보다 앞서 절실한 어떤 말이고, 정서 전달을 통해 감동을 주는 어떤 것"이라고 평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삶 디자인하는 춤 공연 '우리는 몸으로 말해요!'

오늘 광주교육대 풍향문화관

삶을 디자인하는 아름다운 춤 공연, '우리는 몸으로 말해요!'가 17일 오전 11시 광주교육대 풍향문화관 하정웅 아트홀에서 열린다.

광주교대 특성화사업단(단장 이광성)이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광주교대 예비교사와 기초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멘토·멘티가 되어 직접 공연을 펼치는 작품이다.

'Happy All School 라반교실' 프로젝트로 진행된 이번 작품은 정희자 체육교육학과 교수가 기획과 연출을 맡아 몸짓 언어인 무용을 통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공동체의 만남'을 강화, 행복한 삶을 싣티우는 교육 학습 발표의 장이다.

작품은 '신체 만나기-몸아 고마워!', '공감 만나기-물루랄라~핑핑', '탈을 함께 만들어가며 배우는 '관계 만나



가-가면 무도화), 위로와 힘이 되는 든든한 메시지를 그림으로 그리고 몸으로 표현하는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 주세요'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탈춤으로 외치는 우리들', '우리는 고민해결사' 등에 이어 모두가 함께 추는 '오해피 댄스'로 피날레 무대를 장식한다. 문의 062-570-43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건)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정황동 정황동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